

지리산 성삼재·정령치 친환경교통 개선 '산 넘어 산'

국립공원공단 '전기 셔틀버스 운행' 구상, 온실가스 年 625t 저감 케이블카·산악열차 추진과 상충돼 지자체 협조 난항·예산도 난제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이 계획중인 지리산 국립공원 노고단 성삼재·정령치 일원 친환경교통체계 개선사업(광주일보 2022년 1월 20일 13면, 8월 9일 14면 보도)이 구례군의 케이블카와 남원시의 산악열차 설치 등과 상충하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 지난해 한밭대학교 성찬용 교수팀에 의뢰해 실시한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군도12호선(성삼재로)중 천은사 입구에서 도계인 달궁삼거리까지 16.8km 구간과 지방도737호선(정령치로)중 도계 삼거리에서 고기리삼거리까지 12km, 지방도861호선(지리산로)중 도계 삼거리에서 백사리구까지 10.2km 구간에 대해 단거리로는 전기셔틀버스 운영을 구례읍과 남원시 내를 연계해 직접 운영하고 내연기관자동차(경유·휘발유 이용 자동차)운영의 저감과 무공해

자동차의 운영을 장려해 친환경교통문화 확산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중·장기적으로는 전기셔틀버스 운영을 전 구간 확대 운행하며 내연기관 자동차의 통행을 전면 금지하고 무공해 차량만 통행을 허용하도록 해 승용차 없이도 편리하게 국립공원을 탐방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이와 함께 친환경교통개선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공원 내 법정도로를 폐지하고 공단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주장했다.

하지만 친환경전기셔틀버스 운행과 관련, 기존 노선 버스를 운영하는 운송 회사에 지원하는 방식과 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을 비교 제시했으나 두 가지 방법 모두가 도로 관리청인 구례군과 남

원시의 협조 없이는 풀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 이 사업에 소요되는 280여억원의 예산 확보도 환경부 등 중앙정부 지원 없이 지자체가 감당하기엔 어려운 점도 난제이다.

여기에 구례군과 남원시가 이번 연구용역과는 별도로 현재 추진중인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공단과 지자체간 협의의 공단이 구상 중인 친환경 교통체계개선사업의 추진 여부는 미지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이 사업이 시행된다면 연간 625t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 들것으로 예측하며, 이는 강원도산 30년생 소나무 65ha를 조립하는 효과가 나타난다며 사업 추진의 타당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구례군의 한 주민은 "공단 용역 결과의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이 찬반으로 갈리는게 더 문제"라며 "지역발전을 위해서선 언제가는 어떤 방식으로든 반드시 풀어야할 과제"라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



국립공원공단이 지리산 노고단과 정령치 도로의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용역 결과를 내놓았지만 케이블카 설치 문제 등과 상충하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노고단 성삼재 주차장 과 인근 도로 전경.

순천농협 '농촌사랑기금' 타지 농협에 사용 논란

6700만원 영암·김천에 4회 지원 중앙회장 선거 전 선심성 의혹 순천농협 '업무지침 준수해 지급'

전국 최대규모의 단위농협인 순천농협이 '농촌사랑기금'을 4차례에 걸쳐 외지 농협에 지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순천농협(조합장 강성태)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농촌사랑카드 사용으로 적립된 '농촌사랑기금' 중 6700만원을 경북 김천농협과 영암 남주농협 등 4차례에 걸쳐 지원했다.

농촌사랑기금은 지역의 소외계층이나 농협 조합원의 편익을 위해 고객들이 사용한 카드의 일정

비율을 적립해 매년 지역에 환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조합원들은 순천 지역 농민을 위해 써야 할 기금을 2020년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위해서 선심성으로 제공했다는 의혹 제기과 함께 내부 결재 과정 및 감사실의 감사 여부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지난해 지급 해야할 영농자재 교환권(1인당 10만원)을 이번 주 내에 지급할 것으로 보여, 다가오는 3·8 조합장선거를 염두해 두고 올해 지급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농업인들도 순천 농민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외지 농협을 지원할 수 있냐고 불만을 제기했다.

파장이 커지자 순천농협 측은 내부 회의를 거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모았으며, 악의적인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고소·고발을 위한 법적 검토에 들

어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순천농협은 농촌사랑기금은 농협의 각종 카드 사용액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해 농촌사랑운동, 농촌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범용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순천농협 관계자는 "농촌사랑기금은 지역민들에게 사용하는 목적도 있지만 도시 농협이 시골 농협을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상생자금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며 "또 이사회를 통과해 지급했고 감사를 거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순천농협이 기금을 지원한 영암 남주농협은 도농 상생과 농협 간 균형발전이 목적이었으며, 김천 농소농협은 대출 부실로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지원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여수 '교통문화수준' 전국 40위 → 2위로

인구 30만 미만 49개 시 조사...안전 정책·예산 확보 노력 만점

여수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교통문화수준 실태조사'에서 인구 30만 미만 49개 시 중 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수시는 100점 만점에 87.02점으로 2위를 차지하며 지난해 40위에서 38단계나 상승했다.

'교통문화지수'는 전국 229개 시군구의 운전행태, 보행행태, 교통안전 등 3개 부문, 18개 항목을 분석해 100점 만점으로 계량화한 지표로 해당도시의 교통문화 수준을 보여준다.

평가 결과 여수시는 지역 교통안전 정책 이행 정

도, 지자체 교통안전 예산 확보 노력 등 2개 항목에서 만점을 받으며 교통안전을 위한 지자체 노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운전 시 방향지시등 점등율과 보행자 횡단 보도 신호 준수율은 7위를 기록해 운전자와 보행자의 교통 문화수준도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교통의식 개선을 위해 TV 및 라디오를 통한 교통질서 확립 캠페인을 실시하고, 녹색어머니회와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등과 연계한 교통안전 캠페인 등을 지속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보성 홍보'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군민 SNS 서포터즈 발대...명소·행사·맛집·지원제도 등 소개

보성군은 지난달 27일 북재출에서 '제4기 군민 SNS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제4기 군민 SNS 서포터즈는 2023년 12월 말까지 12개월간 총 56명이 활동한다. 서포터즈는 축제·행사 홍보, 지역 명소와 맛집 소개 등 다양한 정보

를 전달하고, 군민들이 꼭 알아야 하는 지원제도 등을 알리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이번 발대식은 체험형으로 추진했으며, 보성 차문화 멀티플렉스인 '다향 아트밸리' 홍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녹돈삼합'과 '녹차죽'을 직접 체험하고 포스팅하면서 본격적인

보성군 홍보에 시동을 걸었다. 아울러 2023 제11회 보성세계차엑스포 성공기원 결의를 다졌다.

발대식에 참석한 김철우 군수는 "보성군민으로 바라보는 보성군의 모습을 다양한 매체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셔서 감사하고, 축제, 지원제도, 행사 등 많은 사람들에게 보탬이 되는 정보를 알리는 데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활동 기준을 충족한 서포터즈에게는 매월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되고, 우수 활동자에게는 인센티브 등의 특전이 제공된다.

/보성=김은중 기자 kyb@kwangju.co.kr

'곡성토란도란'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선정

2026년까지 30억원 투입

곡성군은 2023년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에 '곡성토란'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곡성토란도란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은 2018년에 '곡성멜론'이 선정된 이후 5년 만에 이룬 성과다.

이번 곡성토란도란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은 2026년까지 30억 원이 투입된다. 1~3차 토란 지원의 융복합화를 위한 곡성토란 농촌융복합센터 구축, 토란 신제품 개발, 마케팅과 브랜드 강화, 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해 부가가치를 극대화

시킬 방침이다.

또한 청년농업인 사업과 지원사업을 통해 상품 개발 및 체험관광 프로그램 아이템 경연대회를 추진한다.

기농기초인과 청년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향후 토란산업의 리더로 육성할 계획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곡성토란도란 농촌융복합산업지구조성사업을 통해 다시 한번 곡성 토란의 명성을 알리는 기회가 됐다. 남녀노소 누구나 곡성 토란을 즐기고, 느낄 수 있는 '맛있는 토란 매카 곡성'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kwangju.co.kr

광양 저소득층 난방비 최대 39만원 지원

시, 이달말까지 신청자 접수

광양시는 에너지 소외계층의 최소한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등의 저소득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LPG, 등유 등 난방 연료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28일까지이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가 지원기준에 적합할 경우 오는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가 발급되며, 1인 가구 15만 3700원, 2인 가구 21만 1600원, 3인 가구 28만 8200원, 4인 이상 가구 38만 5300원이다.

정용근 광양시 지역경제과장은 "최근 에너지 요금 상승에 따라 힘든 겨울을 나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본 사업을 통해 따뜻한 겨울나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아직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순천 마을건강리더 19명 위촉

순천시는 지난달 30일 순천시보건소 보건의로 상환실에서 건강리더 양성교육을 수료한 19명을 일류 마을건강리더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들은 지난 2주간 강사 지도 하에 매일 2시간씩(총 20시간) 노인 건강지도·제조 관련 이론 및 실기 교육 과정을 이수했다.

마을건강리더는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주민들에게 주 1~2회 이상 지속적인 건강교육과 건강제조 지도 등의 재능기부를 통해 마을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주민 소통의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마을건강리더 12명이 활동 중이며, 시는 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매일 1회 보수교육을 하고 있다. 이번 양성교육으로 올해는 총 31명의 건강리더들이 순천시 관내 경로당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보성군민에 인터넷·스마트폰 교육

군, 14일간 정보화교육...9일까지 수강생 모집

보성군은 오는 9일까지 '상반기 군민 맞춤형 정보화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군민 맞춤형 정보화교육'은 보성군청 2층 정보화 교육장(보성관), 별교컴퓨터학원(별교관)에서 진행되며, 2월 13일부터 3월 3일까지 3주에 걸쳐 매일 2시간씩 4~5일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은 ▲인터넷 기초 ▲스마트폰 기초 ▲스마트폰 활용 ▲엑셀 ▲한컴오피스한글 등 기초적인 과정 총 6개 강좌가 개설된다.

보성군은 컴퓨터, 인터넷 기초에서부터 한컴오피스한글, 스마트폰 기초까지 교육과정에 포함시

켜 수강생들이 다방면에서 정보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앞으로 더욱 다양한 영역의 정보화교육을 마련해 스마트시대를 살아가는 데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고 말했다.

신청은 보성군청 총무과 정보통신팀(061-850-5144)에서 전화 접수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보성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성=김은중 기자 kyb@kwangju.co.kr